



濁流清論

제35호 2014년 12월 4일(목)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아주대학이 직면한 문제와 <총장천거위원회>에 거는 기대	1
특집: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3
총장후보자 추천 진행 과정	7
소통과 담론: 겨울앞에서	8
교수들의 건강칼럼: 건강검진 어디까지 필요인가	10
"연구영역 승진·승격 최저 기준안" 관련 교수회 성명서	1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아주대학이 직면한 문제와 <총장천거위원회>에 거는 기대

사학과 김태승

최근 대학사회는 국가, 사회, 교육 수요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떤 대학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업화의 방식을 통해, 어떤 대학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규모 불리기를 통해 그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장선출 절차를 통해서 <천거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그러한 내외의 도전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아주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재정적인 문제이다. 운영관련 예산은 2014년도에 10%의 감액에 이어 2015년도에는 20% 감액을 목표로 편성되고 있다. 인건비 부문은 사실상 수년째 동결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해가 갈수록 대학 구성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외부 상황은 고비용의 교육, 교수 충원률 제고 등 재정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에 따른 각종 교육용 기기의 첨단화, 교육보조 인력의 확충,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단위클래스 규모의 축소 및 신규 전공의 개발과 그에 따른 신규교수 채용 등은 모두 많은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들이다. 이처럼 교육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단순히 예산편성의 최적화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 총장 선출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아주대 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아주대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분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다. 교수, 교직원, 학생, 재단 등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대학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현실분석과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등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포용력으로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지 특정 관점으로 대학사회를 분열시키고 이해대립의 장으로 대학사회를 이끌고 간다면 아주대학의 생존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구성원들의 호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장선출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 묶어나갈 수 있는 총장의 지도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대학사회는 일종의 ‘치킨게임’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각종 평가제도를 통한 내외의 압력, 국가 재정지원 획득을 위한 무한 경쟁, 자율적 대학재정의 유일한 원천인 등록금 동결과 정원감축의 강제 등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대학을 덮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살아남는 문제’에 대학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물량작전은 대학의 교육/재정체제 등을 왜곡시켜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뿐 진정한 대학사회의 개혁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안정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대행체제를 포함하면 9분의 총장이 아주대학을 이끌어왔다.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이 최근의 2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대학이 급격한 변혁의 와중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을 아주대가 거쳐 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대학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총장의 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만능의 자리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주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대학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총장선출 과정 자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고, 대학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결의가 정비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천거위원회>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특집

‘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대학총장직은 전지전능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총장의 영향력의 폭과 깊이는 한 대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지녔지만 대학의 발전은 총장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총장이 제시하는 비전을 교수들이 신뢰할 때 대학 발전은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임무가 될 것입니다. 과연 교수들은 차기 총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 분이 차기 총장이 되기를 교수들은 바라고 있을까요? <탁류청론> 편집위원회는 차기 총장에 대한 기대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에게 여쭙봤습니다. 총 8분의 교수님이 익명으로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을 알려오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지만 여러 교수들님이 차기 총장에게 기대하는 점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분, 하지만 일방적으로 본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총장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대학 발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8분 교수님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1. 익명 기고

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 필요조건: 무능한 현 총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충분조건: 학문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십시오.

- 정신적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거나 아니면 "뉘"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돈"을 (혹은 "돈"이라도 잘) 끌어와야

할 것임.

1)에서의 두 역할 중 어떤 것에 더 역점을 두건, 내적 조직화에 있어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발적 협동과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대학에선 노예 감시인(slave driver)의 마음가짐을 가진 자는 (운이 좋은 경우라 할지라도) 중간관리자 이상이 될 수 없음. 교수들은 자신을 노예 취급하는 총장 면전에선 마지못해 악수를 할 것이나 뒤돌아서 서는 바로 세면대로 가 손을 씻으며 육두문자를 날릴 것임. 제발 총장은 총장답기를.

자신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해 독선과 독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2. 익명기고

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학교와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로서, 지원금 몇 푼의 단기간의 이익에 영합하지 않고, 퇴임 후에도 더 그리운 인생의 스승.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시오.

사회전반이 온통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작 나아질게 없는 현실에서, 대학만큼은 그럴듯한 단기간의 이익을 내세우며 시류에 편성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몰아세우는 허접한 꼴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근거도 없이 기업에나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들이대며, 실제 학교의 학생과 구성원이 어떤 고민과 문제점이 있는지는 관심도 없이, 가장된 언론 기관의 대학순위를 핑계에 연연하기 보다 학교의 미래와 구성원들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에 부임한지 10년이 다 되가는 기간 동안, 대학순위 평가향상,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대학교가 그럴듯하게 포장만 갖춰서 해 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가 그 동안 진정으로 발전해 온 게 느껴지십니까? 중앙일보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교수 연구업적을 강조하고 닥달 해 왔지만, 강의실에서 스승으로서 교수들이게 학생들에게 쏟아 부을 시간과 열정이 충분한지는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학의 총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허언이나 아집으로 학교를 마음대로 끌고가다가 안되면 버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2대 이사장이셨던 김준엽 박사님처럼 독재정권에 맞서서 직을 걸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분은 아니더라도, 시대의 허접한 주류에 편성해서 대학의 구성원들을 늘 평가와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세우고, 긴장과 피곤함에 지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일부터 길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매물찬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 말씀을 듣고 싶은 인생의 영원한 선배같은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익명기고

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 아주대 교수진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깨워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분
- 본부(처장회의)에만 머물지 말고 학과 단위로 교수들을 직접 만나서 현황과 애로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분
- 취임 초기에만 만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수들과 만나서 듣는 분
- 교수들에게 학교 입장을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충분히 듣고 함께 고민하는 분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시오.

위와 동일함.

4. 익명기고**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분으로 공동융합연구 경험이 있고, 배출된 아주대 대학원생들의 성과가 우수한 분
이런 분이여야 연구중심의 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바와 관련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임.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시오.

공동체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으로 기술적 평가지표에 얽매이기 보다는 포괄적인 논의를 유도하기를 바라며, 학내의 시시콜콜한 문제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장기비전에 따라 대외적으로 아주대를 중요한 교육 및 연구중심대학으로 이끌기를 바람.

5. 익명기고**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총장직을 감투나 명예로 여기고 어른 행세하시려는 분 말고, 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봉사하실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위세부리기보다는 학교 발전을 위해 바깥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총장님이 계신다면 모두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시오.

학문과 지식생산의 주체입니다. 한명의 학자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내는 고유한 연구영역을,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비교 평가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면, 교수는 월급받고 학술지용 논문 매년 써주고 퇴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대학교 평가 순위 상승/유지에 기여한 직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었던 한 명의 학자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업적기준은 최소 필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수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믿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아주대에 정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장에 대학평가 순위가 몇 등 떨어지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전문가, 학자들이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 훌륭한 학자들이 오고 싶은 대학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6. 익명기고**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주대학교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기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화를 하며 정진하려고 하는 단계임에 아주대학교를 잘 아시는 분이 총장이 되셔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내에서 임명되었으면 합니다.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오.

그 동안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전공을 막론하고 대학과 구성원들 간에 신뢰 회복을 바라며,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들어 하시는 구성원에게는 힘과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추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 익 명 기 고

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인격과 지성을 겸비한 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둘 다 갖춘 분을 찾기 어렵다면 인격적인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격적인 분'이라 함은 다른 이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청춘을 귀하게 여기는 분,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분입니다.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오.

물질만능 배금주의에 젖지 않고 대학을 대학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청춘을 청춘답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8. 익 명 기 고

1) 어떤 분이 차기 총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려 최선을 다하고 실행력을 갖춘 분.
- 우리대학의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해법을 (1)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 목표를 추구하되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관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

2)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술해주시오.

- 교육과 Academic Freedom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함.
- 학생을 위한 참된 교육과 교육의 근본을 정직하게 살피주고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람.
- 우리대학에 신뢰의 문화, 존중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구현해 주실 수 있기를 희망.
- 부도덕과 잘못된 관행을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희망.
- 우리대학의 도약을 위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할 근본적 문제들 (불신, 교육정신이 없는 행정과 행정의 독선, 구성원들의 이기주의와 시기, 집단사고, 책임회피, 단기적 사고, 혁신성 부족 등)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희망.
- 교육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국제화 포함)를 읽고 능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희망함.
-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시길 바람 (No Free Lunch/Ride).

총장 후보자 추천 진행 과정*

(* 작성자 주; 현재 총장후보자 천거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10. 17. 대학평의위원회 대표 교수 3인, 법인대표 이사 3인, 동문대표 1인, 지역외부인사대표 1인으로 구성된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이하 천거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다.

2. 2014. 10. 23. 천거위원회 1차 회의

- 위원장 선출; 위원 호선으로 00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위원장은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표명하다.

- 운영 일정; 2014. 11. 7 까지 총장후보자 물색 및 지원 등록을 마치고 2014. 12. 15 까지 천거를 완료하기로 하다. 차기 총장 선출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다.

- 총장후보자 물색; 각 천거위원에 의한 개별 추천과 지원자 본인에 의한 지원을 병행하기로 하다. 총장 후보자 지원 안내는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되 홍보팀을 통해 일간지 및 한국대학신문, 교수신문 등에 기사화를 추진하기로 하다. (지원 접수마감; 2014. 11. 17)

3. 2014. 10. 28. 천거위원 간담회를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다.

4. 2014. 11. 19. 천거위원회 2차 회의

총장후보자 지원에 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다. (지면 및 온라인 보도 : 한국대학신문, 대학저널, 뉴시스, 경기일보, 기호일보, 경기신문)

총장 후보자 지원 현황 및 지원서 확인 ; 내외부 7인 지원

총장 후보자 검증 항목을 논의하다.

- 학문적 윤리(연구진실성) 검증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총장 천거대상자 검증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방법을 논의하다.; 각 위원들이 각 대상자별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전달하면 각 위원의 의견서를 취합한 후 차기 회의 (2014. 11. 30)에서 대상자 개개인 별로 토론하기로 하다.

필요시 대상자를 만나보기로 하다.

5. 2014. 11. 30. 천거위원회 3차 회의

학문적 윤리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다.

각 후보 별, 각 검증 항목 별 천거위원 의견서 취합 자료를 함께 열람하고 토론하다.

2014. 12. 1. 이재호 (천거위원회 교수추천위원)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거울 앞에서

문화콘텐츠학과 주철환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며칠 지나면 나도 환갑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면 먼저 웃음부터 날 것 같다. 겁부터 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갑갑하고 막막하다면 두려움과 서러움이 밀려올 것이다. 그런 감정 대신 내 마음의 정원은 즐거움과 고마움의 향기로 가득하다. 왜? 10년 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작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어제 죽었다면 지금 관 속에 누워 문상객의 추억담에 귀 기울일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유유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나이 들수록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 말들이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그 중 하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뿌려라. 그리고 거두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둘 생각만 한다면 그건 도둑의 심보다.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의 소치다. 돌아보니 나는 어느 정도 뿌렸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거두었다. 그리고 아직도 뿌릴 게 남아 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하진 않는다. 말을 터뜨리는 순간 말은 퍼지고 그 말은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로 자신하고만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다. 다만 이런 말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 자신의 삶에서 행한 과종과 추수에 대해

돌아본다면 그건 꽤 다행스런 일이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글을 쓰며 위안을 삼는다.

나는 60년 동안 뭘 뿌렸나? 또 뭘 거두었나? 이따금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본다. 미움의 씨앗보다는 사랑의 씨앗을 조금은 더 뿌렸다. 절망보다는 희망, 비관보다는 낙관의 씨앗을 조금은 더 많이 뿌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미움, 절망, 비관이 생길 때마다 자주 그것들을 내다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것들은 주로 사랑, 희망, 낙관이다. 그것들은 번식력이 강해서 10배, 100배의 생산물을 산출한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 본다. 신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선물로 주셨고 거기에 시간을 덤으로 얹어 주셨다. 다시 신 앞에 서는 날이 오면 처음 받은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사실대로 낱낱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그날에 대비하여 난 미래의 시간표를 대충 짜놓았다. 사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즐겁게 일하고 놀 수 있을 때까지는 신나게 놀 것이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 아등바등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다. 나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려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으니까. 우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착각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서 나 역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10년은 훌쩍 지나갈 것이다. 지나간 10년이 그랬으니까.

소박한 것 같기도 하고 원대한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건강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소리는 지르지 말고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어야 한다. 돈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알뜰하게 벌어야 한다. 아내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하고 아들의 눈치도 조금은 살피야 한다. 이러면 비겁한 노후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부리고 사는 것이 뭐가 비겁한가. 비겁한 삶이란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사는 가짜인생이다.

행복해지는 건 간단한테 간단해지기가 어렵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게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게 진짜 행복의 선순환 과정이다. 이 단순한 명제만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다. 10년 후에 환갑을 맞을 후배들에게 말한다. 지금부터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눈치 보며 따라가다 보면 계속 남들 뒤통수만 쳐다보게 된다. 남들 꿈무늬만 바라보며 평생을 노예처럼 사는 게 뭐가 좋은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신이 주신 선물을 처박아두지 말고 지금 당장 꺼내라. 거울 속에 비친 너의 몸, 아직은 분별력이 있는 영혼, 그리고 불과 3미터 안에 있는 너의 가족. 그 귀한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윤기 있게 만들 것인가. 거울은 오늘도 내게 묻는다.



고수들의 건강칼럼

건강검진 어디까지 필요한가

내분비대사교실 김 대 중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갑상선암 얘기를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 얘기가 시작된 것은 몇몇 의사들이 갑상선암이 유독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갑상선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암검진 (갑상선초음파) 때문이며 따라서 갑상선초음파를 검진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림 1>을 보면 남자 (좌측)에서도 물론 갑상선암(Thyroid)이 증가하지만, 여자 (우측)에서는 과거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암은 증가가 완만한 것도 있고 오히려 남자의 간암처럼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암이 특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갑상선암은 그 경과가 양호하여 갑상선암으로 심각한 건강 위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때문에 더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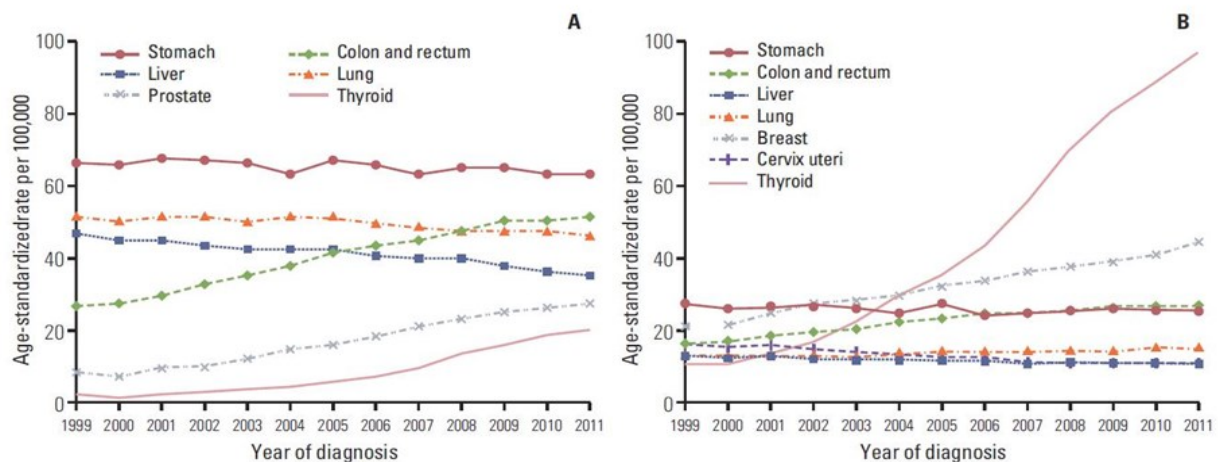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암 진단 통계. 연령 표준화 진단율 (10만명당 발생 환자 수)

여기서 우리는 그림 암 검진은 왜 해야 하는가로 사고의 출발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은 소위 암이건 만성질환이건 조기 발견을 위해 하는 것이다. 특히 암의 경우 조기 발견을 하면 완치율이 높아지고 당연히 사망 위험을 줄이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위암의 경우 최근에는 조기 위암 상태에서 발견하여 위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개복수술(배를 열고 위절제를 하는 수술)을 피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 폐암의 경우 위낙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단순 흉부 엑스레이로는 진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런 심각한 병들도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표 1>은 우리나라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추천하고 있는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검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암 뿐아니라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해주고 있다. 정확히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재정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사업이다. 사실 여기에 갑상선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 국가암관리사업 기준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의 남녀	2년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 위험군	1년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녀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의 여성	2년

갑상선암의 경우는 위낙 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생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증상자에 대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와 달리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강검진 때문에 더욱 부추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의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수익을 위해 또한 지나치게 검진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는 측면도 있다. 누구나 얘기하듯이 질환자를 치료하는 건강보험 영역이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일관하는 가운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이 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의 비정상화된 모습이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비단 갑상선암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사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유방촬영을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10-15%는 유소견이 나오고 그러면 이차검진을 한다. 유방초음파술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조직검사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유방암으로 최종 진단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유방검진을 몇 명의 여성이 받는지 통계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매년 유방암을 진단받는 사람은 1만6천명에 불과하다. 건강검진이 활발해지면서 이차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부담도 엄청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만명이 새로 암을 진단받고, 7만명이 암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당연히 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여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여건과 제도 속에서 국민들을 지나치게 건강염려증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런 건강검진이 얼마나 비용효과적인지 등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나치게 언론보도에 휘둘리는 사고방식도 짚고 싶다. 마치 갑상선암은 진단 받아도 치료 없이 지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갑상선암도 암이다.



< “연구영역 승진·승격 최저 기준안” 관련 교수회 성명서 >

현재 대학본부에서는 연구성과 부분의 대외평가 향상을 위해 업적평가(승진·승격) 기준의 강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또한 그 방법 중 하나로 업적평가 기준의 상향조정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학문단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와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대학본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하향식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교수회 대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학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적평가기준 변경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2. 그 대안으로 각 학과 주체로 업적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3. 대학본부는 이를 위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바란다.
4. 충분한 논의 후 마련된 각 학과별 안을 전체 대학 차원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5. 연구활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책을 강구한다.
6. 산학협력 기준은 승진·승격 기준안과 별도로 마련하라.

2014. 11. 25

아주대학교 교수회 대의위원회

편집위원회 : 노명우(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윤호섭, 이재호